

註:「忠烈公諱方慶의 史記 風濤 第一部 第三章에서 부터 나오기 시작하여 끝까지 계속 게재되어 있으므로 一章, 二章은 中略하고, 第一部 第三章서 부터 번역 게재 하겠읍니다。」

第一部 第三章

六월 중순, 돌연히 고려에서 는 용이치 않은 사신이 발생하였다. 지난해 연말에 김준(金俊)을 죽이고, 그후 김준을 대신하여 군(軍)의 통솔자가 된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 임연(林衍)이 왕(王)의 폐립(廢立)을 행하였던 것이다.

왕의 폐립이 행해진 전날의 장용(李藏用)은 자기 처택에서 임연의 방문을 맞았다. 방문자의 얼굴을 한눈에 본 순간, 이 장용은 방문자의 용견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 장용은 임연(林衍)을 가운데 뜰에서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안방으로 안내하였는데, 제방쪽 건너편으로 부터 들려오는 군마(軍馬)의 울음소리가 귀에 들려왔다.

실부(실부)의 말(馬)은 아니었다. 무장한 부대는 이미요 소요소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임연은 살기 면 눈을 정면으로 이 장용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하였다. 자기는 현왕(現王) 원종(元宗)을 해도(海島)로 유배(流配)시키고, 왕(王)의 아부안경공(安慶公)을 옹립 할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생각하고 또 생각한 나머지 결의(決意)한 것으로서, 재상(宰相)이신 귀하(貴下)가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도, 나의 생각을 변경할 수는 없다. 폐립(廢立)의 이유는 분명하다. 고려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난국(難局)은 세조(世祖) 후비(后)라 이를 존신(尊信)하고 그 괴뢰(傀儡)에 지나지 않는 현왕(現王)의 힘으로서는 처리할 수가 없다. 세자 심(世子 諱)의 힘으로서는 처리할 수가 없다. 이때 로 간다면 고려는 몽고의 직할

지(直轄地)가 되고 끝내는 나라를 잃어버릴 뿐이다. 마땅히 현왕(現王)의 아우 안경공(安慶公)을 왕으로 세우고서 국정(國政)을 개혁(改革)하고 민심을 얻는 함으로써 국난에 임할 수 있다.

이 장용은 그 생각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하였다. 이 장용에게는 임연(林衍)의 결의(決意)의 이유가 임연의 지금 말한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으나 또 그것만 도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원종은 본래 임연이란 인간을 중시(重視)하지 않고 있었다. 권신(權臣) 김준(金俊)을 죽인 공적은 있다고 하지만, 단단한 다혈질(多血質)이어서 하여튼 포악한 행동으로 나오기 쉬운 중년의 무인(武人)을 높이 평가할 수는 없었다. 그런 일을 임연도 잘 알고 있어서 병마(兵馬)의 권세를 수중에 넣



(2)

井上靖著 金崙會譯

으로서 폐립을 행(行)하여야 할 것이라는 자기의 의견을 진술했다. 이 장용으로서도 어떻게 하든지 원종의 생명을 보전하지 않으면 안되고, 또 몽고의 잔심하는 일도 고려(考慮)에 넣어 그것도 방지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임연은 이 장용의 말을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그의 의견을 받아들여기로 하였다.

왕(王)의 폐립은 그 이른날 이루어졌다. 태자 심(太子 諱)이 이월(利)에 장도(江都)를 출발하여 몽고에 입조하고 있는 것도 임연으로서도 일을 하기 위하여 하였던 것이다. 즉일로 창(倡)이 왕위(王位)에 오르므로 원종은 별종으로 옮겨졌다. 모든 일은 무장한 군사들이 감시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로부터 이삼일이 지나서 이 장용은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 김방경(金方慶)을 찾아가서 그와

같이 가만히 원종을 알현(謁見)하고, 잠깐 계시면 왕위(王位)에 다시 복위(復位)하시도록 노력하겠으니 그때까지 잠깐 참고 계시라고 말하였다. 자기와 김방경(金方慶) 두 사람이 있는 동안은 별도로 나라를 그리질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 두 사람에게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용은 이렇게 말하였다. 김방경(金方慶)은 장신수구(長身瘦軀)에 학(鶴)과 같은 몸매를 뜻해서 세우고 평소와 조금도 표정을 변하지 않고, 무어라고 입을 말로 나타막하게 말하였다. 김방경(金方慶)은 희대(稀代)의 놀변(詭辯)과 과묵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임연은 주살(誅殺)하는 일은 용이하지 않은 그때문에 일이 거칠어 진다면 몽고의 간섭을 받게 되는 일이 두려웠다. 잠깐만 참으소서, 참으소서! 그런 말을 하였는데 이 장

용과 원종은 잘 알아 듣지 못하였다. 그러나 김방경(金方慶)이 무어라고 또 말을 하였는데 그것이 묘하게도 안심이 되게 느껴졌다. 김방경(金方慶)은 이 장용이 가장 신뢰하는 무인(武人)으로서, 이때 五十八세, 이 장용보다 十一세가 아래였다.

김방경(金方慶)의 자(字)는 본연(本然)이요 안동사람으로 서, 신라정순왕(新羅敬順王)의 원손(遠孫)이다. 아버지 효인(孝印)은 성품이 엄의(嚴毅)하고 과거(科擧)에 급제하여 벼슬이 병부상서(兵部尙書)에 이르렀다. 방경(方慶)의 어머니께서 방경(方慶)을 임신(妊娠)하였을 때 가끔 구름과 안개를 머는 꿈을 꾸어, 사람들에게 운기(雲氣)가 항상 내림과 그에 서리고 있으므로 아들은 반드시 신불(神佛)이 점지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한다. 방경(方慶)은 그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 준엄(峻嚴)하고 강(剛毅)하고 법(法)을 지키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풍절(風節)이 늙은(凜然)한 것이 마치 신화중(神化中)에서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 몽고 침구(侵寇)시에는 서북면(西北面)의 판관(判官)이 되어 평탄(平坦)한 지역으로서 방연(防禦)을 호한 경지(耕地)가 될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수물이 들어와서 개간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방경(方慶)은 두(腹)를 쌓아서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파종(播種)을 하도록 하였다. 또 섬에 우물이 없어 항상도민(島民)들이 육지로 물을 길러 갔다가, 몽병(夢兵)들에게 포로가 되는 것을 보고, 빗물을 저수(貯水)하여 못(池)을 만들어 물은 거정을 면하게 하였다. 김방경(金方慶)은 이러한 훌륭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원종시대가 되어서는 직접 군(軍)에서 물러나와 재상(宰相)으로서 중책을 띠고 있었다.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 몽고 침구(侵寇)시에는 서북면(西北面)의 판관(判官)이 되어 평탄(平坦)한 지역으로서 방연(防禦)을 호한 경지(耕地)가 될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수물이 들어와서 개간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방경(方慶)은 두(腹)를 쌓아서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파종(播種)을 하도록 하였다. 또 섬에 우물이 없어 항상도민(島民)들이 육지로 물을 길러 갔다가, 몽병(夢兵)들에게 포로가 되는 것을 보고, 빗물을 저수(貯水)하여 못(池)을 만들어 물은 거정을 면하게 하였다. 김방경(金方慶)은 이러한 훌륭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원종시대가 되어서는 직접 군(軍)에서 물러나와 재상(宰相)으로서 중책을 띠고 있었다.

후, 심복(心腹)의 사람 중서사(中書舍人)과 여필(郭汝弼)을 몽고의 조정에 파견하여 병(病)으로 인하여 왕위(王位)를 아우 창(倡)에게 양위(讓位)하였다는 원종의 표문(表文)을 바치도록 하였다.

七월 二十一日 몽사(蒙使) 우루다이 등 六명이 두 사람의 일본인을 데리고 강도에 들어왔다. 그리고 추각 두 부로(浮屠)를 대마도에 송환 하도록 하라는 세조의 명령을 전하였다. 고려정부는 김유성(金有成)·고유(高柔)를 일본에 파견하여 전회(前回)의 전일사(遣日使) 일행이 그대로 가지고 돌아온 접서(牒書)를 다시 일본에 가지고 가는 것과 동시에 두 사람의 일본인을 환송(還送)시키도록 하였다. 고려가 일본에 사절(使節)을 보내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였다.

七월말 김유성(金有成)·고유(高柔)의 일행은 일본을 향하여 강도를 출발하였다. 초지진(草芝津)의 도선장(渡船場)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초야(朝野)의 전송인(餞送人)으로 붐비었다.

八월 하순 몽고에서 조사(詔使)가 왔다. 조서(詔書)에는 원종이 일찌기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 그런데 종주국(宗主國)인 몽고의 재가(裁可)도 받지 않고 함부로 왕(王)을 폐립(廢立)했다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자세한 사실을 알되라고 하였다. 조사(詔使)에 의하여 비로서 판명된 일이지만은 관여필(郭汝弼)이 몽고에 입조(入朝)·도중(途中) 강변의 영주(靈州)에서 몽고에 서 귀국(歸國)·도중(途中)에 있었던 태자 심(太子 諱)과만 나서 비밀로 숨겨 들추 없는 국내(國內) 사정을 심(諱)에게 말하였다. 이것이 七월 二十四일의 일인데 심(諱)은 그 길로 곧바로 되돌아서서 그달 말일에 연도(燕都)에 들어가 모국(母國)에서 일어난 사건을 세조에게 호소하고 그의 협력을 요청하였다. 이와 같은 까닭에 세조

로 부터의 조사(詔使)가 강도에 파견되어 왔던 것이다. 이 장용은 임연으로 부터 몽고에 입조(入朝)하여 출절을 부탁받고 종계 세조의 노여움을 풀게 하고, 사태를 원만히 수습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신(臣)은 본래 세조에게 잘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전번에 입조하였을 때도 마침내 세조의 뜻은 얼굴을 보지 못하였고 병선(兵船)의 건조(建造)와 징병(征兵)의 일을 명령 받았을 뿐이다 나라의 중대한 시국(時局)만 기꺼이 몽고에 가고 싶으나 이번에는 김방경(金方慶)을 보내주기를 바란다. 김방경(金方慶)은 신(臣)과는 달라서 세조도 후(厚)하게 그 인물을 사랑하고 방경(方慶)에 대한 칭찬을 몇 번이고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김방경(金方慶)의 말이 라면 절대 신용할 것이다。」

이 장용은 말하였다. 이 장용은 몽고에의 입조도 중요하지만 만은 이 임은 김방경(金方慶)에게 맡겨두고 자기는 강도(江都)에 머물러 있고 싶어서였다. 원종의 절을 떠나는데 불안을 느낀 것이었다.

김방경(金方慶)이 몽고의 조사(詔使)와 같이 몽고에 들어가 표문(表文)을 세조에게 바치기로 했다. 전에 관여필(郭汝弼)을 시켜 고주(高奏) 시킬려고 한 것과 거의 같은 표문(表文)이었다. 김방경(金方慶)은 九월 초에 강도를 출발하였다. 이에 대한 회담은 조사(詔使) 허덕(赫德)에 의하여 十一月 十一일 강도에 도달하였다. 그것은 원종형제와 임연(林衍)의 입조(入朝)를 촉구(促求)한 것으로서 세조 자신이 일체의 사정을 취취(聽取)하고 그러한 뒤에 결단을 내린다는 것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몽고의 고려출병(宣布)이 되어 있었다. (다음 호에 계속)

安東金氏 大宗會 理事
司法書士 金 洙 萬
서울 冠岳區 新林洞 六一〇一三〇八
電話: 自 三五六一四五〇四
事 二三四三二一九六九四

安東金氏 大宗會 理事
常務理事 金 名 會
서울 九老區 開峰洞 五七一三
電話: 六一三一七五二

安東金氏 大宗會 理事
理事 金 以 會
서울 特別市 九老區 九老洞 三二五
電話: 八五五二〇九三

安東金氏 大宗會 理事
理事 金 容 遠
서울 特別市 聖水洞 二街 二七五二
電話: 四六三一四〇一五六

安東金氏 大宗會 理事
協同化學株式會社 社長 金 學 永
서울 麻浦區 老古洞 五四一三六
電話: 自 三三三三〇四三〇
社 二六五〇一七七九

安東金氏 按廉使公派 前會長 顧 問
安東金氏 大宗會

金 鳳 演
忠北·槐山郡 贊坪邑 大洞 一〇五六
電話: 贊坪 四一二二九

조상님 직함(職銜)의 머리(冠頭)에서 많은 공신호(功臣號)를 찾아 볼 수 있다.

이 공신호는 국가나 왕실을 위해서 특수한 공훈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칭호로서 그 공훈을 알 수 있는 명칭을 달고 등급으로 나누어서 포상하였다.

이 공신호는 중구(中區)부터 유래 되었으며 이 제도를 본따기는 이미 신라(新羅) 시대에 누공(錄功)을 했다고 하며, 문헌에 나타나기는 고려 태조 왕건(王建)의 창업에 공을 세운 개국공신(開國功臣)이 있었고, 특히 경순왕(敬順王)은 관광(觀光)·순화(舜化)·위국(威國)·순화(順化)·위국(威國)·순화(舜化)의 공신호를 받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삼훈(三勳)이라 한다.

또 충렬공(忠烈公) 할아버님께 서는 추충(追忠)·정란(正蘭)·정원(正源)·정충(正忠)·정난(正難) 공신호를 받으시고 다시 선충(先忠)·협모(協謨)·정란(正蘭)·정국(正國)·정충(正忠)·정난(正難)·정국(正國)의 공신호를 추가로 받으셨으니 공신호(七勳)이 되신다.

이에 따른 포상으로는 상락군 개국공(上洛郡開國公)으로 친조의 식읍(食邑)에 속한 토지와 노비를 받으셨고, 자손에게 녹용(祿用)의 은전으로 벼슬을 주어 양반(兩班)의 기틀이 되도록 하였다.

충렬공의 만 아들인 신전법관서공(神傳法官)은 원충(元忠)·단력(丹力)·안사(安社)·보정(保正)·공신(公愼)·안사(安社)·보정의 4훈 공신으로서 판서공의 둘째 아들인 양간공(良簡公)·휘(承澤)은 직양(直亮)·좌리(佐理)·동덕(同德)·좌리(佐理)의 3훈 공신이며 문정공(文正公)의 넷째 아들인 부창부원군(福昌府院君)·휘(永照)께서는 추성(추정)·보정(보정)·동덕(동덕)·익찬(익찬)·보정(보정)·동덕(동덕)·익찬(익찬)의 4훈공신이고 제학공(提學公)·휘(益達)의 아버님인 상라백공(上洛伯)·휘(紀)께서는 단성(斷誠)·보조(補助)의 3훈공신이다.

이조(李朝)에 와서도 교서(敎書)와 녹권(錄券)을 아울러 사용했는데 태조(太祖) 창업에도 공신들에게 내린 개국공신(開國功臣)에 이어 28종의 종부(種目)를 정하였다. 이러한 종부(種目)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을 세운 사건(事件)에 따라 적당한 종부를 정하였다. 이에 관계되는 사무를 관장하는 관청으로는 공신도감(功臣都監)과 충훈부(忠勳府)·녹(錄)·도감(都監) 등에서 모든 사무를 처리하였다. 이제 그 28종의 공신호에 대해서 종목별로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功臣論 小考 (1)

고고 자질이 영매한 인물이 고 보니 이에 대한 불만이 만져만 아니었다. 또한 한편으로는 개국공신으로서 세자방석(芳碩)의 보도(輔導)를 책임지고 있는 정도전(鄭道傳) 등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불만이 있었다. 1396년에는 한양신도(漢陽新都)의 공역이 완료되었고 1398년에는 정도전(鄭道傳)·남언(南彦)·심효생(沈孝生) 등이 밀모(密謀)하고 태조가 위독하다고 하여 모든 왕자를 궁중으로 불러들였다. 이 기회에 방원(芳遠)을 위시해서 한세(한세)·소생(소생)의 왕자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우리를 살릴 왕(王)으로 추대하고 고려의 공양왕(恭讓王)은 왕위를 양보하여 그 달 17일에 는 수창궁(壽昌宮)에서 즉위식을 가졌다. 이때 이성계의 장남(長男)인 공신(公愼) 52명 을 책봉(策封)했는데 1등 10명, 2등 13명, 3등 20명, 4등 9명, 5등 10명, 6등 10명, 7등 10명, 8등 10명, 9등 10명, 10등 10명, 11등 10명, 12등 10명, 13등 10명, 14등 10명, 15등 10명, 16등 10명, 17등 10명, 18등 10명, 19등 10명, 20등 10명, 21등 10명, 22등 10명, 23등 10명, 24등 10명, 25등 10명, 26등 10명, 27등 10명, 28등 10명, 29등 10명, 30등 10명, 31등 10명, 32등 10명, 33등 10명, 34등 10명, 35등 10명, 36등 10명, 37등 10명, 38등 10명, 39등 10명, 40등 10명, 41등 10명, 42등 10명, 43등 10명, 44등 10명, 45등 10명, 46등 10명, 47등 10명, 48등 10명, 49등 10명, 50등 10명, 51등 10명, 52등 10명, 53등 10명, 54등 10명, 55등 10명, 56등 10명, 57등 10명, 58등 10명, 59등 10명, 60등 10명, 61등 10명, 62등 10명, 63등 10명, 64등 10명, 65등 10명, 66등 10명, 67등 10명, 68등 10명, 69등 10명, 70등 10명, 71등 10명, 72등 10명, 73등 10명, 74등 10명, 75등 10명, 76등 10명, 77등 10명, 78등 10명, 79등 10명, 80등 10명, 81등 10명, 82등 10명, 83등 10명, 84등 10명, 85등 10명, 86등 10명, 87등 10명, 88등 10명, 89등 10명, 90등 10명, 91등 10명, 92등 10명, 93등 10명, 94등 10명, 95등 10명, 96등 10명, 97등 10명, 98등 10명, 99등 10명, 100등 10명, 101등 10명, 102등 10명, 103등 10명, 104등 10명, 105등 10명, 106등 10명, 107등 10명, 108등 10명, 109등 10명, 110등 10명, 111등 10명, 112등 10명, 113등 10명, 114등 10명, 115등 10명, 116등 10명, 117등 10명, 118등 10명, 119등 10명, 120등 10명, 121등 10명, 122등 10명, 123등 10명, 124등 10명, 125등 10명, 126등 10명, 127등 10명, 128등 10명, 129등 10명, 130등 10명, 131등 10명, 132등 10명, 133등 10명, 134등 10명, 135등 10명, 136등 10명, 137등 10명, 138등 10명, 139등 10명, 140등 10명, 141등 10명, 142등 10명, 143등 10명, 144등 10명, 145등 10명, 146등 10명, 147등 10명, 148등 10명, 149등 10명, 150등 10명, 151등 10명, 152등 10명, 153등 10명, 154등 10명, 155등 10명, 156등 10명, 157등 10명, 158등 10명, 159등 10명, 160등 10명, 161등 10명, 162등 10명, 163등 10명, 164등 10명, 165등 10명, 166등 10명, 167등 10명, 168등 10명, 169등 10명, 170등 10명, 171등 10명, 172등 10명, 173등 10명, 174등 10명, 175등 10명, 176등 10명, 177등 10명, 178등 10명, 179등 10명, 180등 10명, 181등 10명, 182등 10명, 183등 10명, 184등 10명, 185등 10명, 186등 10명, 187등 10명, 188등 10명, 189등 10명, 190등 10명, 191등 10명, 192등 10명, 193등 10명, 194등 10명, 195등 10명, 196등 10명, 197등 10명, 198등 10명, 199등 10명, 200등 10명, 201등 10명, 202등 10명, 203등 10명, 204등 10명, 205등 10명, 206등 10명, 207등 10명, 208등 10명, 209등 10명, 210등 10명, 211등 10명, 212등 10명, 213등 10명, 214등 10명, 215등 10명, 216등 10명, 217등 10명, 218등 10명, 219등 10명, 220등 10명, 221등 10명, 222등 10명, 223등 10명, 224등 10명, 225등 10명, 226등 10명, 227등 10명, 228등 10명, 229등 10명, 230등 10명, 231등 10명, 232등 10명, 233등 10명, 234등 10명, 235등 10명, 236등 10명, 237등 10명, 238등 10명, 239등 10명, 240등 10명, 241등 10명, 242등 10명, 243등 10명, 244등 10명, 245등 10명, 246등 10명, 247등 10명, 248등 10명, 249등 10명, 250등 10명, 251등 10명, 252등 10명, 253등 10명, 254등 10명, 255등 10명, 256등 10명, 257등 10명, 258등 10명, 259등 10명, 260등 10명, 261등 10명, 262등 10명, 263등 10명, 264등 10명, 265등 10명, 266등 10명, 267등 10명, 268등 10명, 269등 10명, 270등 10명, 271등 10명, 272등 10명, 273등 10명, 274등 10명, 275등 10명, 276등 10명, 277등 10명, 278등 10명, 279등 10명, 280등 10명, 281등 10명, 282등 10명, 283등 10명, 284등 10명, 285등 10명, 286등 10명, 287등 10명, 288등 10명, 289등 10명, 290등 10명, 291등 10명, 292등 10명, 293등 10명, 294등 10명, 295등 10명, 296등 10명, 297등 10명, 298등 10명, 299등 10명, 300등 10명, 301등 10명, 302등 10명, 303등 10명, 304등 10명, 305등 10명, 306등 10명, 307등 10명, 308등 10명, 309등 10명, 310등 10명, 311등 10명, 312등 10명, 313등 10명, 314등 10명, 315등 10명, 316등 10명, 317등 10명, 318등 10명, 319등 10명, 320등 10명, 321등 10명, 322등 10명, 323등 10명, 324등 10명, 325등 10명, 326등 10명, 327등 10명, 328등 10명, 329등 10명, 330등 10명, 331등 10명, 332등 10명, 333등 10명, 334등 10명, 335등 10명, 336등 10명, 337등 10명, 338등 10명, 339등 10명, 340등 10명, 341등 10명, 342등 10명, 343등 10명, 344등 10명, 345등 10명, 346등 10명, 347등 10명, 348등 10명, 349등 10명, 350등 10명, 351등 10명, 352등 10명, 353등 10명, 354등 10명, 355등 10명, 356등 10명, 357등 10명, 358등 10명, 359등 10명, 360등 10명, 361등 10명, 362등 10명, 363등 10명, 364등 10명, 365등 10명, 366등 10명, 367등 10명, 368등 10명, 369등 10명, 370등 10명, 371등 10명, 372등 10명, 373등 10명, 374등 10명, 375등 10명, 376등 10명, 377등 10명, 378등 10명, 379등 10명, 380등 10명, 381등 10명, 382등 10명, 383등 10명, 384등 10명, 385등 10명, 386등 10명, 387등 10명, 388등 10명, 389등 10명, 390등 10명, 391등 10명, 392등 10명, 393등 10명, 394등 10명, 395등 10명, 396등 10명, 397등 10명, 398등 10명, 399등 10명, 400등 10명, 401등 10명, 402등 10명, 403등 10명, 404등 10명, 405등 10명, 406등 10명, 407등 10명, 408등 10명, 409등 10명, 410등 10명, 411등 10명, 412등 10명, 413등 10명, 414등 10명, 415등 10명, 416등 10명, 417등 10명, 418등 10명, 419등 10명, 420등 10명, 421등 10명, 422등 10명, 423등 10명, 424등 10명, 425등 10명, 426등 10명, 427등 10명, 428등 10명, 429등 10명, 430등 10명, 431등 10명, 432등 10명, 433등 10명, 434등 10명, 435등 10명, 436등 10명, 437등 10명, 438등 10명, 439등 10명, 440등 10명, 441등 10명, 442등 10명, 443등 10명, 444등 10명, 445등 10명, 446등 10명, 447등 10명, 448등 10명, 449등 10명, 450등 10명, 451등 10명, 452등 10명, 453등 10명, 454등 10명, 455등 10명, 456등 10명, 457등 10명, 458등 10명, 459등 10명, 460등 10명, 461등 10명, 462등 10명, 463등 10명, 464등 10명, 465등 10명, 466등 10명, 467등 10명, 468등 10명, 469등 10명, 470등 10명, 471등 10명, 472등 10명, 473등 10명, 474등 10명, 475등 10명, 476등 10명, 477등 10명, 478등 10명, 479등 10명, 480등 10명, 481등 10명, 482등 10명, 483등 10명, 484등 10명, 485등 10명, 486등 10명, 487등 10명, 488등 10명, 489등 10명, 490등 10명, 491등 10명, 492등 10명, 493등 10명, 494등 10명, 495등 10명, 496등 10명, 497등 10명, 498등 10명, 499등 10명, 500등 10명, 501등 10명, 502등 10명, 503등 10명, 504등 10명, 505등 10명, 506등 10명, 507등 10명, 508등 10명, 509등 10명, 510등 10명, 511등 10명, 512등 10명, 513등 10명, 514등 10명, 515등 10명, 516등 10명, 517등 10명, 518등 10명, 519등 10명, 520등 10명, 521등 10명, 522등 10명, 523등 10명, 524등 10명, 525등 10명, 526등 10명, 527등 10명, 528등 10명, 529등 10명, 530등 10명, 531등 10명, 532등 10명, 533등 10명, 534등 10명, 535등 10명, 536등 10명, 537등 10명, 538등 10명, 539등 10명, 540등 10명, 541등 10명, 542등 10명, 543등 10명, 544등 10명, 545등 10명, 546등 10명, 547등 10명, 548등 10명, 549등 10명, 550등 10명, 551등 10명, 552등 10명, 553등 10명, 554등 10명, 555등 10명, 556등 10명, 557등 10명, 558등 10명, 559등 10명, 560등 10명, 561등 10명, 562등 10명, 563등 10명, 564등 10명, 565등 10명, 566등 10명, 567등 10명, 568등 10명, 569등 10명, 570등 10명, 571등 10명, 572등 10명, 573등 10명, 574등 10명, 575등 10명, 576등 10명, 577등 10명, 578등 10명, 579등 10명, 580등 10명, 581등 10명, 582등 10명, 583등 10명, 584등 10명, 585등 10명, 586등 10명, 587등 10명, 588등 10명, 589등 10명, 590등 10명, 591등 10명, 592등 10명, 593등 10명, 594등 10명, 595등 10명, 596등 10명, 597등 10명, 598등 10명, 599등 10명, 600등 10명, 601등 10명, 602등 10명, 603등 10명, 604등 10명, 605등 10명, 606등 10명, 607등 10명, 608등 10명, 609등 10명, 610등 10명, 611등 10명, 612등 10명, 613등 10명, 614등 10명, 615등 10명, 616등 10명, 617등 10명, 618등 10명, 619등 10명, 620등 10명, 621등 10명, 622등 10명, 623등 10명, 624등 10명, 625등 10명, 626등 10명, 627등 10명, 628등 10명, 629등 10명, 630등 10명, 631등 10명, 632등 10명, 633등 10명, 634등 10명, 635등 10명, 636등 10명, 637등 10명, 638등 10명, 639등 10명, 640등 10명, 641등 10명, 642등 10명, 643등 10명, 644등 10명, 645등 10명, 646등 10명, 647등 10명, 648등 10명, 649등 10명, 650등 10명, 651등 10명, 652등 10명, 653등 10명, 654등 10명, 655등 10명, 656등 10명, 657등 10명, 658등 10명, 659등 10명, 660등 10명, 661등 10명, 662등 10명, 663등 10명, 664등 10명, 665등 10명, 666등 10명, 667등 10명, 668등 10명, 669등 10명, 670등 10명, 671등 10명, 672등 10명, 673등 10명, 674등 10명, 675등 10명, 676등 10명, 677등 10명, 678등 10명, 679등 10명, 680등 10명, 681등 10명, 682등 10명, 683등 10명, 684등 10명, 685등 10명, 686등 10명, 687등 10명, 688등 10명, 689등 10명, 690등 10명, 691등 10명, 692등 10명, 693등 10명, 694등 10명, 695등 10명, 696등 10명, 697등 10명, 698등 10명, 699등 10명, 700등 10명, 701등 10명, 702등 10명, 703등 10명, 704등 10명, 705등 10명, 706등 10명, 707등 10명, 708등 10명, 709등 10명, 710등 10명, 711등 10명, 712등 10명, 713등 10명, 714등 10명, 715등 10명, 716등 10명, 717등 10명, 718등 10명, 719등 10명, 720등 10명, 721등 10명, 722등 10명, 723등 10명, 724등 10명, 725등 10명, 726등 10명, 727등 10명, 728등 10명, 729등 10명, 730등 10명, 731등 10명, 732등 10명, 733등 10명, 734등 10명, 735등 10명, 736등 10명, 737등 10명, 738등 10명, 739등 10명, 740등 10명, 741등 10명, 742등 10명, 743등 10명, 744등 10명, 745등 10명, 746등 10명, 747등 10명, 748등 10명, 749등 10명, 750등 10명, 751등 10명, 752등 10명, 753등 10명, 754등 10명, 755등 10명, 756등 10명, 757등 10명, 758등 10명, 759등 10명, 760등 10명, 761등 10명, 762등 10명, 763등 10명, 764등 10명, 765등 10명, 766등 10명, 767등 10명, 768등 10명, 769등 10명, 770등 10명, 771등 10명, 772등 10명, 773등 10명, 774등 10명, 775등 10명, 776등 10명, 777등 10명, 778등 10명, 779등 10명, 780등 10명, 781등 10명, 782등 10명, 783등 10명, 784등 10명, 785등 10명, 786등 10명, 787등 10명, 788등 10명, 789등 10명, 790등 10명, 791등 10명, 792등 10명, 793등 10명, 794등 10명, 795등 10명, 796등 10명, 797등 10명, 798등 10명, 799등 10명, 800등 10명, 801등 10명, 802등 10명, 803등 10명, 804등 10명, 805등 10명, 806등 10명, 807등 10명, 808등 10명, 809등 10명, 810등 10명, 811등 10명, 812등 10명, 813등 10명, 814등 10명, 815등 10명, 816등 10명, 817등 10명, 818등 10명, 819등 10명, 820등 10명, 821등 10명, 822등 10명, 823등 10명, 824등 10명, 825등 10명, 826등 10명, 827등 10명, 828등 10명, 829등 10명, 830등 10명, 831등 10명, 832등 10명, 833등 10명, 834등 10명, 835등 10명, 836등 10명, 837등 10명, 838등 10명, 839등 10명, 840등 10명, 841등 10명, 842등 10명, 843등 10명, 844등 10명, 845등 10명, 846등 10명, 847등 10명, 848등 10명, 849등 10명, 850등 10명, 851등 10명, 852등 10명, 853등 10명, 854등 10명, 855등 10명, 856등 10명, 857등 10명, 858등 10명, 859등 10명, 860등 10명, 861등 10명, 862등 10명, 863등 10명, 864등 10명, 865등 10명, 866등 10명, 867등 10명, 868등 10명, 869등 10명, 870등 10명, 871등 10명, 872등 10명, 873등 10명, 874등 10명, 875등 10명, 876등 10명, 877등 10명, 878등 10명, 879등 10명, 880등 10명, 881등 10명, 882등 10명, 883등 10명, 884등 10명, 885등 10명, 886등 10명, 887등 10명, 888등 10명, 889등 10명, 890등 10명, 891등 10명, 892등 10명, 893등 10명, 894등 10명, 895등 10명, 896등 10명, 897등 10명, 898등 10명, 899등 10명, 900등 10명, 901등 10명, 902등 10명, 903등 10명, 904등 10명, 905등 10명, 906등 10명, 907등 10명, 908등 10명, 909등 10명, 910등 10명, 911등 10명, 912등 10명, 913등 10명, 914등 10명, 915등 10명, 916등 10명, 917등 10명, 918등 10명, 919등 10명, 920등 10명, 921등 10명, 922등 10명, 923등 10명, 924등 10명, 925등 10명, 926등 10명, 927등 10명, 928등 10명, 929등 10명, 930등 10명, 931등 10명, 932등 10명, 933등 10명, 934등 10명, 935등 10명, 936등 10명, 937등 10명, 938등 10명, 939등 10명, 940등 10명, 941등 10명, 942등 10명, 943등 10명, 944등 10명, 945등 10명, 946등 10명, 947등 10명, 948등 10명, 949등 10명, 950등 10명, 951등 10명, 952등 10명, 953등 10명, 954등 10명, 955등 10명, 956등 10명, 957등 10명, 958등 10명, 959등 10명, 960등 10명, 961등 10명, 962등 10명, 963등 10명, 964등 10명, 965등 10명, 966등 10명, 967등 10명, 968등 10명, 969등 10명, 970등 10명, 971등 10명, 972등 10명, 973등 10명, 974등 10명, 975등 10명, 976등 10명, 977등 10명, 978등 10명, 979등 10명, 980등 10명, 981등 10명, 982등 10명, 983등 10명, 984등 10명, 985등 10명, 986등 10명, 987등 10명, 988등 10명, 989등 10명, 990등 10명, 991등 10명, 992등 10명, 993등 10명, 994등 10명, 995등 10명, 996등 10명, 997등 10명, 998등 10명, 999등 10명, 1000등 10명, 1001등 10명, 1002등 10명, 1003등 10명, 1004등 10명, 1005등 10명, 1006등 10명, 1007등 10명, 1008등 10명, 1009등 10명, 1010등 10명, 1011등 10명, 1012등 10명, 1013등 10명, 1014등 10명, 1015등 10명, 1016등 10명, 1017등 10명, 1018등 10명, 1019등 10명, 1020등 10명, 1021등 10명, 1022등 10명, 1023등 10명, 1024등 10명, 1025등 10명, 1026등 10명, 1027등 10명, 1028등 10명, 1029등 10명, 1030등 10명, 1031등 10명, 1032등 10명, 1033등 10명, 1034등 10명, 1035등 10명, 1036등 10명, 1037등 10명, 1038등 10명, 1039등 10명, 1040등 10명, 1041등 10명, 1042등 10명, 1043등 10명, 1044등 10명, 1045등 10명, 1046등 10명, 1047등 10명, 1048등 10명, 1049등 10명, 1050등 10명, 1051등 10명, 1052등 10명, 1053등 10명, 1054등 10명, 1055등 10명, 1056등 10명, 1057등 10명, 1058등 10명, 1059등 10명, 1060등 10명, 1061등 10명, 1062등 10명, 1063등 10명, 1064등 10명, 1065등 10명, 1066등 10명, 1067등 10명, 1068등 10명, 1069등 10명, 1070등 10명, 1071등 10명, 1072등 10명, 1073등 10명, 1074등 10명, 1075등 10명, 1076등 10명, 1077등 10명, 1078등 10명, 1079등 10명, 1080등 10명, 1081등 10명, 1082등 10명, 1083등 10명, 1084등 10명, 1085등 10명, 10

舊安東金氏와 新安東金氏의 区分 (2)

안렴사공(尉士廉)은 고려가 망하자 아우이신 익원공(尉士衡)과는 달리 청주 오근(梧根·지금의 오창면 모정리)에 은거하시면서 두문 불출하셨는데 평소 애한 양(漢陽·서울) 쪽을 향해 있는 일조차 없었다. 태조(太祖·李成桂)가 여러 차례 불러 좌사간(左司諫)의 벼슬을 임명하였으나 끝내 응하지 않았다.

공은 돌아가실 때 말씀하시기를 「고려의 신하로서 임금을 보좌하고 나라를 보전하지 못했으니 아니라 나와 같이 죽지도 못한 죄인이 무슨 벼슬로 죽어서 신왕(僉王)을 피울 것인가... 내가 죽거든 깊고 깊은 산중에 묻어 봉토(封土)하지 말라. 유언(遺言)을 아들이 깨닫고 나가지 말라. 벼슬한 후손들은 이조에 나가서 벼슬하지 말것을 당부하였다.

뒷날에 우암 송시열(宋尤庵)은 시열은 공의 깨끗한 절개를 옛날 중국의 백이 숙제(伯夷叔齊)에게 비유하였는데 그래서인지 안렴사공의 후손은 벼슬한 분이 많지 않고 주로 익원공의 후손과 문숙공(文肅公 永敬)의 손자이신 제학공(尉益達)의 후손 중에서 많은 벼슬을 하였다.

세조(世祖) 때 좌의정(左議政)을 지낸 문정공(文靖公·尉碩·호 雙谷)은 익원공의 증손이다. 공은 세조(三十二)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집현전(集賢殿)의 학사(學士)로서 성삼문(成三門·최항(崔恒)·신숙주(申叔舟) 등과 함께 문종(文宗)의 총애를 받았다. 뒤에 세조(世宗)가 왕위를 빼앗자 성삼문 등과 단종복위(端宗復位) 계획에 가담했으나 절개를 지키지 못하고 뒤에 좌의정에

지 올랐다. 문정공의 아우이신 무(斌)는 중종(中宗) 때 공조판서(工曹判書)를 지내고 청백리(淸白吏)로 뽑혔다. 중종 때 영의정을 지내신 만보당 문정공수동(晩保堂文敬公壽童)은 익원공의 현손이시고 문정공의 조카이다. 공은 어지러운 연산군(燕山君) 말년에 우의정(右議政)으로 있으면서도 성품이 원만하고 인화(人和)가 좋으며 연산군의 폭정 속에서도 화(禍)를 입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많은 문신(文臣)들을 잡싸주어 무사하게 했다.

연산군 12년에는 성회안(成希顔)에게서 중종반정(中宗反正) 계획을 듣고 이에 가담하여 정국공신(靖國功臣) 2등에 오르며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領議政)이 되었다.

또한 정국공신 3등에 오른 참의공(參議公 尉壽卿)은 그분의 아우이다. 이 무렵, 효자(孝子)로 이름났던 영모당(永慕堂 尉質)도 익원공의 후손이다. 또 선조 때 임진왜란의 수습에 조선과 명나라·일본간의 외교적 접촉을 성공시킨 마후인물(幕後人物)로 알려져 명신(明臣)으로 이름난 효헌공(孝獻公 尉贍)도 문정공의 현손이다. 이리하여 이조 중후기(李朝中後期)까지 번창하던 구안(舊安)계파가 인조를 고비로 하여 급격히 퇴조(退潮)하게 되었는데 그 계기를 이분이 인조 때 영의정인 유명한 낙포(洛圃) 自點이다. 문정공의 5대손인 자점공은 우계성혼(牛溪成渾)의 문인으로서 음보(蔭補)로 등용되어 광해군 말년에는 병조좌랑(兵曹佐郎)에 이르렀으나 당시의 전란인 대북파에 밀려다가 1623년에는 인조반정에 가담해서 정사공신(靖社功臣) 1등에 올랐다. 그

러나 반정에 성공한 서인(西人)이 집권하게 되면서부터 반정에 직접 참가하여 공을 세운 것과 반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파 사이에서 틀이 벌어져 전자(前者)는 공서(功西) 혹은 후사(勳西)라 하고 후자(後者)는 청서(淸西)라 했다.

인조 말엽에 공서에서는 다 시나홍부원군(徐興府院君) 김자점(金自點)을 영수(領袖)로 하는 낙포(洛黨)와 평원부원군(平原府院君) 원두표(元斗杓)를 영수로 하는 원당(原黨)으로 갈라졌는데 이 무렵 김자점 공은 영의정이 되어 그의 손자 세룡(世龍)이 인조의 말인 효명(孝明) 즉 위정(威政)과 혼인함으로써 외척(外戚)으로서 실권을 잡고 세력을 크게 떨쳤다. 1649년에 인조가 죽고 효종(孝宗)이 즉위하자 김경여(金慶餘)·송준길(宋浚吉) 등으로 부터 국정(國政)을 농락하여 조정을 어지럽히는 탄핵을 받고 파면되었으며 정계는 다시 송시열(宋時烈)·김상헌(金尙憲)·송준길(宋浚吉) 등을 중심으로 해서 개편되었으나 이로 인해 서구 안동김씨의 정치적 퇴조를 초래하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조(李朝)에 들어와서 안렴사공(尉士廉)의 후손으로서 명성을 떨친 분들은 지주사공(知州事公 尉週周)·관교공(判校公 尉九)·참의공(參議公 尉宗孫)·참판공(參判公 尉城)·신창공(新昌縣監公 尉階)·안원공(安原君 尉公亮)·목사공(牧使公 尉公望)·참의공(參議公 尉公爽)·승지공(承旨公 尉公藝)·그리고 명종(明宗) 때 예조참판(禮曹參判)에서 여러 벼슬을 지내고 전라·황해·양도의 감사(監) 지내신 화산군(花山君 尉澍)은 이른바 문장(文宗)로서 많은 저서를 남겼다. 그밖에 도승지공(承旨公 尉碩)·부사공(府使公 尉憲)·임진왜란 때 창(倡)한 진사공(進士公 尉河瑞)·문장으로 이름이 높았고 증직 대사헌(贈大司憲)인

진사공(進士公 尉志)·병자호란 때 성천부사(成川府使)로서 장렬히 순절한 민숙공(愍肅公 尉誼)과 이 인파의 난(李麟佐亂) 때 형 천주(天柱)와 더불어 함께 전사한 증 좌승지공(贈左承旨 尉天章) 등이 있다.

또 문숙공(文肅公 永敬)의 후손인 제학공파(提學公派)에서는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상 최악의 국란을 당하자 몸바쳐 싸운 충신(忠臣)이 많아 충의가문(忠義家門)의 영예를 입었다.

그 때 대표적인 인사로는 제학공의 7대손으로 원주목사(原州牧使)였던 의재공(毅齋公 尉梯甲)과 공의 조카이신 시민시약(時敏 時若)의 형제 등이다. 문숙공(文肅公 尉梯甲)은 선조(宣祖) 때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를 지내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원주목사(原州牧使)로서 원주성(原州城)을 지키다가 그 부인이씨(李氏)와 그리고 둘째 아들 시백(時伯)과 함께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뒤에 영의정(領議政)에 추증(追贈)되고 인주의 충렬사(忠烈祠) 등에서 제향하며 1966년에는 강원도민(江原道民)에 의해 충렬탑(忠烈塔)과 사적비(事蹟碑)를 원주 역전 광장에 세웠다.

충무공(忠武公 尉時敏)은 문숙공의 형님이신 지평공(持平公 尉忠甲)의 아들이다. 선조 11년에 무과(武科)에 급제하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진주목사(晉州牧使)로서 사천(泗川)과 고성(固城) 등지에서 왜군을 크게 무찌르고 경양우도(慶尙右道兵馬節度使)가 되어서는 금산(金山)에서 또 적을 대파하였다. 그 해 가을에 진주성이 적군에게 포위되자 공은 겨우 3천 8백의 병력으로 7주야를 버티면서 왜병으로 하여금 3만이 넘는 사상자를 내게하고 마침내 장렬히 전사함으로써 인하여 선무공신(宣武功臣)에 녹훈(錄勳)되고 영의정(領議政)과 상락부원군(上洛府院君)에 추증 되었으며

며 충민사(忠愍祠)를 지어 향사한다. 또 그의 아우이신 시약(時若)도 임진왜란에 의병을 일으켜 괴산 선봉장(槐山先鋒將)으로서 여러 곳에서 적을 무찔러서, 승리를 거두었고 정유재란(丁酉再亂) 때 도 큰 공을 세웠으나 두 아들과 함께 적에게 사로잡혀 순절(殉節)하였다. 또 충무공의 아들 남봉공(南峰公 尉徽)은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를 지냈으며 특히 천문(天文)과 역학(易學)에 뛰어나 인조반정으로 능양대군(綾陽君)이 왕위에 오를 것을 예언(豫言)하여 인조반정을 성공케 하였다. 또 문숙공의 장남(長男) 시현(時獻)은 선조(宣祖) 때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광해군(光海君) 때 예조참판(禮曹參判)에 이르렀고 참판공(參判公 尉翼公)의 아들 사유정(四休亭公 尉微)은 숙종(肅宗) 때 이조판서를 지냈는데 그림자 그리기도 유명했다. 또 숙종 때 문장으로 이름을 떨친 백곡공(柏谷公 尉得臣)은 충무공의 손자이며 관찰사공(尉徽)의 아들이다.

구안동김씨에서 장손 계열(長孫系列)인 충숙공(忠肅公 尉承用)의 후손에서도 훌륭한 무신(武臣)이 많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광해군 때 명(明)나라에까지 용맹을 떨친 충무공(忠武公 尉應河)을 첫 손에 꼽는다. 그는 충익공(承用)의 9대손이요, 부사공(副使公 尉天順)의 7대손이다. 14세에 부모를 여의시고 아우 응해(應海)와 형제간의 우애가 자비해서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다. 선조 37년에 25세로서 무과에 급제한 공은 병조판서 박승중(朴承宗)에게 발탁되어 그의 선전관(宣傳官)이 된 것을 시초로 여러 무관직을 역임했다.

1618년(光海10)에 명(明)나라에서는 후금국(後金國)의 진주위(建州衛)에서 일어난 반란 진압을 위한 원병(援兵)의 요청이 있어 공은 도원수인 장흥립(姜弘立)을 따라 좌영장(左營將)으로 출정하였다.

이 때 명나라의 도독(都督) 인유정(劉經)은 3만의 병력을 이끌고도 부차령(富車嶺)에서 크게 패하여 자살해 버렸다. 한편 도원수 장흥립은 항복해 버리고 우영장(右營將)이었던(李一元)도 그대로 달아나 버렸다. 이 파병(派兵)은 애당초 명나라에 대해서는 의리상 부득이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광해군은 이 싸움에서 명나라에 승산이 없었음을 알고 장흥립에게 「우금(後金)의 비위를 상하게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홀로 남은 응해장군(應河將軍)은 불과 3천의 병력으로 6만의 적과 대치해서 불꽃튀는 격전을 벌였으나 소수의 병력으로 하는 수 없이 끝내는 남은 군사들도 흩어져 버리니 홀로 남은 장군은 버디나무를 의지하고 일주일 버티다가 마침내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이때 그의 몸에는 수백개의 화살이 꽂혀 있었고 그의 손에는 칼자루를 잡은 채 두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

명나라의 신종(神宗) 황제는 요동백(遼東伯)을 추증(追贈)함과 동시에 조서(詔書)를 내려서 유가족을 위로하였고 많은 은백금(白金)을 보내서 가족의 생계를 도왔으며 우리 나라 조정(朝廷)에서도 영의정(領議政)을 추증하고 충무공(忠武公)의 시호(諡號)를 내렸다. 충무(忠武)란 시호(諡號)는 무관(武官)으로서의 최고의 공훈을 세우고 전사(戰死)한 장군에게 내려주는 시호로서 이조에서 는 조영부(趙英茂)·남이(南怡)

一山金屬社

代表 金象默

京畿道 高陽郡 一山邑 一山里 二二九番地

電話 { 一山工場 (1344) 2113
金村工場 (1348) 2-3620

安金東氏大宗會 理事 總務部長

新光社

(세기Y제조원)

代表 金斗會

住所: 서울·九老区 禿山 4洞 192-7
工場: 서울·東大門區 新設洞
電話: (自) 862-7655
(社) 94-0062

說傳 夢雲寺의 怪變

안동군 남후면 점암동(安東 郡南後面儉岩洞)에 자리한 몽운사(夢雲寺)는... 이 절은 조그마한 법당(法堂)과 몇칸짜리 승방(僧房)만 있을 뿐이지만 그래도 신라 중엽(新羅中葉)에 창건한 고찰(古刹)이다.

이 몽운사에는 언제부터 생긴 괴변(怪變)인지는 몰라도 그믐날 밤에 절에서 자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져 있고 이 절의 중들은 그믐날이면 의례적으로 하산(下山)을 하고 가까운 마을에서 남의 집 사랑방 신세를 지곤 하였다.

몽운사의 중들은 그날도 그믐이라 일찌기 공양(供養)을 마치고 하산할 준비에 분주했다. 중들이 내려 가니 주지스님 한분과 상좌(上座) 한사람 그리고 나무를 해다가 공양을 짓고 하는 부목(負木) 한사람이 있을 따름이었다.

산골의 저녁은 빨리 어두어져 조금만 지체하면 지척(咫尺)을 분간하기 어려운 암흑(暗黑)의 시간이 다가올 것인데 주지스님은 아직도 승방(僧房)에서 염주만 굴리고 있으니 어딘가 좌나 무식한 부목은 벌써 대문 밖에서 조바심을 떨고 있었다.

이 때 멀리서 말뚝을 소리가 들려왔다. 상좌는 급히 앞마당으로 뛰어갔다. 「스님! 스님!! 죄사관 나리 도령님이 오시는 모양입니다.」

주지스님은 힐끔 돌아보고는 조용히 일어섰다. 「오늘 밤은 집에 가서 공부 를 하시고 일러 줘야지...」 주지스님은 조용히 중얼거리면서 나와 대문 밖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상좌도 뒤를 따랐다. 바로 이때, 말뚝에서 뛰어 내리는 소년...

그는 합장을 하고 공손히 허리를 굽혀 주지스님에게 인사 를 하고, 스님도 「남부 관세음 보살, 을 부르면서 합장배례 하였다. 그리고 스님은...」

「도령님? 오늘 밤은 도령님 도백으로 가셨다가 내일 부터 오시면 좋겠습니다.」 「왜? 오늘 밤엔 스님께서 어 디를 가시오니까?」

주지스님의 말에 소년은 의아스러운 표정으로 스님의 눈치를 보면서 물었다. 「도령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절에서는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매달 그믐날 밤에 절에서 자게되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 밤은 우리들도 마을로 내려 가서 어느 백 사랑에서 하룻 밤 신세를 끼쳐야 하니 도령님도 소승과 같이 내려가서 때으로 가셔야 합니다.」

주지스님의 설명을 들은 소년은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다가 무슨 결심이라도 한듯이 큰 소리로 말했다. 「스님? 오늘 밤은 제 혼자서 절을 지켜도 좋겠는지요?」

소년의 말에 주지스님은 깜짝 놀랄 듯이 고개를 들어 소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나즈막한 목소리로 타일렀다. 「아니 됩니다. 도령님, 도령님은 앞으로 나와와 중생(衆生)을 위해서 하신 일이 많으신데 공정한 장난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 오 늘 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소승과 같이 산을 내려 가셔야만 됩니다.」

「아니올시다. 도대체 무슨놈의 장난인지? 그 원인을 밝히서 그 뿌리를 뽑아 버리고 다시는 괴변이 없도록 해야 되 겠습니다.」 영웅한 소년의 고집에 주지스님은 소년의 잡고 있는 말고 배를 빼앗아 잡으면서

「자, 도령님 그러시지 마시고 같이 내려 갑시다.」 높은 스님의 말에 소년은 하 는 수 없이 말머리를 돌렸다. 이 때 十三, 四세의 소년이 야 말로 고려의 고종(高宗)·원종(元宗)·그리고 충렬왕(忠烈王) 때까지 三대의 임금들을 섬기 면서 四十여년 동안 받아온 몽고(蒙古)의 침략을 화해로 이끄는 데 주력(主力)하였고 반란군(三別抄)의 준동(準動)을 막아 이를 심멸했으며 도원수(都元帥)로서 여원(元)연합군(元聯合軍)을 이끌고 두번이나 일본 본토를 정벌한 안동김씨의 중시조이신 충렬공(忠烈公)의 소년 시절이었다.

공(公)은 어린 시절을 고향(楡谷)에서 보내었다. 그곳에서 할아버지(휘敏成)로부터 학문을 배우고 밤이면 十여리나 되는 몽운사(夢雲寺)에 가서 공부를 하였다. 이날도 공부를 하시기 위해 몽운사에 갔으나 주지스님의 말투로 할 수 없이 집으로 가 는 길이었다.

어둠 침침한 비탈길을 걸어서 二마정 가량이 나오면 고개 마루... 여기서 저녁, 노을 에 붉게 물들린 낙동강의 잔잔한 물결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도령님! 그러면 오늘 밤은 대에서 묵 쉬시고 내일 저녁에 또 오십시오.」

낙동강 기슭까지 온 스님은 이렇게 인사를 하고 동(東)과 서(西)로 헤어졌다. 공은 서(西)로 향해 강북을 타고 집으로 향했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몽운사의 수수께끼를 풀지 않고는 전담수가 없었다. 몇번이고 생각한 끝에 공은 말머리를 돌려 다시 몽운사로 향 했다.

절간 대문 앞에 당도했을 때 는 어둠이 산천을 뒤덮었고, 짙은 구름은 별안간에 소나비라 도 몰고 올듯한데 절간은 빈집 처럼 고요했다. 공은 공부방으로 들어가서 촛불을 밝히고 책을 읽었다. 낭랑한 글소리는 허공을 타고 퍼

저 온 골짜기로 흘러가고 시간 은 일각일각하고 밤중으로 다가 가는 데 밖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정신 없이 읽고 있던 글 소리를 멈춘 공은 눈을 지긋이 감고 무슨 생각에 잠겼다. 「보자, 무엇이 장난인지?」 공은 다시 책을 펴서 읽기 시작 했다. 그때다, 별안간에 방문이 열리면서 음풍(陰風)이 일었다. 공은 약간 눈을 돌려 문쪽을 힐끔 보았다. 十六, 七세가량은 젊은 여인이 하얀 옷차림으로 문안에 한발 다가서고 있었다. 그러나 공은 읽던 글 소리를 멈추지 않고 묵 소리를 더 울려 주었다. 여인은 완전히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는 살며시 문을 닫았다. 그리고는 은 아랑곳 없다는 듯이 글 소리를 높였다. 여인은 요염한 미소를 띄우면서 공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공의 무릎 위에 보얀 손을 얹었다. 아무런 반응도 없이 글 소리만 내는 공(公)...

가진 몸짓과 웃음으로 비상한 요태(妖態)를 다 부리는 여인... 「열론하나 팔지 않고 글만 읽 고 있던 공은 한손으로 힘없이 여인의 허리를 껴안았다. 여인은 이제야 동(動)했구나. 하 는듯이 얼굴을 공(公)의 가슴 속 에 파묻고 제법 소리를 내 면서 「호호」 웃음을 웃었다. 그러나 공의 글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다만 팔에 힘을 주면서 여인의 허리를 점점 흔들었다. 여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 졌다. 눈에서는 눈물이 글썽거리고 전기가 어린듯 고동 때문 인지 몸을 비틀거렸다. 이마에 서는 땀방울이 솟구치고 사지(四肢)에서는 경련(痙攣)이 일 기 시작 했다. 그러나 아랑곳 하지 않는 공(公)은 더욱 글 소리만 높였다. 글 소리가 높아질 때마다 팔에 힘도 더 주어졌다. 이러한 일이 한 시간 가량이 나 계속 되었을까?

여인은 기진맥진 하였는지 눈 을 사르르 감으면서 고개를 앞으로 깊이 숙였다. 「장군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장군님! 이제부터는 다시 이런 짓을 안할 것이오니 제발 좀 살려 주십시오.」 애절부절하는 여인의 사정 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엇인가 생각에 잠겼다. 「여인의 울음 섞인 말... 그 한마디 한마디 속에는 분명히 사람의 말 같지 않는 구절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인은 죽을 힘을 다해서 사정을 하였다. 「그저야 공(公)은 여인 쪽 으로 고개를 돌렸다. 「요년! 요망한 짐승 같으니 라고... 네 정체를 밝혀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라도 네 몸을 놓지 않으리라.」 「네 장군님, 제발 놓아 주십시오, 놓아만 주시면 제 사정을 상세히 말씀드리겠나이 다.」 「그렇게 하라.」

여인의 허리에서는 굳센 팔이 풀리면서 다른 손으로 여인의 손목을 꼭 잡았다. 「자! 자세히 말해 보라.」 공의 말소리는 조용 하였다. 그러나 그의 눈에서 빛나는 섬광(閃光) 앞에서 여인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장군님! 장군님의 앞에서 미물(微物)의 짐승인 제가 어 제 감히 거짓말을 하오리까? 「뭣이!! 미물...」 「네, 저는 진니산 바위 굴속 에 사는 삼백살이 넘는 여우 울시다. 살다가 보니 이제 삼백살이 넘었고 들기로는 인간(人間) 천명의 혼을 빼면 미물의 짐승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밤밤을 이용해서 이 절을 찾아 온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살피 주신다면 이 미물은 다시 인간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사는 대로 살다가 죽겠습니다. 제발, 제발 이대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사는 곳까지

나와 함께 갈 수 있겠느냐? 「네, 그리 하오리다.」 「그리하여 공(公)은 인간으로 둔갑(遁甲)한 여우의 뒤를 따라 어두운 산골길을 걸었다. 여 시공의 억센 손은 여인의 손목 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여인은 사람의 발걸이라고는 알아 보지 않았던 듯 수목(樹木) 사이만 누비면서 얼마나 갔을 까? 산 중턱에 위치한 어느 큰 바위 앞에서 여인은 걸음을 멈추었다. 「장군님, 여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기가 제 집이 을시다. 제가 장군님의 은혜 에 보답할만한 물건이 있사오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인은 이렇게 말 하고는 공 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네가 나를 또 속일 것인가?」 공은 큰 소리로 꾸짖듯이 말 하였다. 「아니올시다 아무리 미물의 짐승이지만 장군님의 은혜를 잊는 제가 어찌 거짓말을 하 겠습니까, 장군님은 서슴치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라.」

공은 여인의 손목을 놓아 주 었다. 여인은 바로 옆에 있는 바위 굴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조금 있다가 굴속에서 나온 여인은 조그마한 나무 방망이 한개를 공에게 바치면서 공손 히 말했다. 「장군님이시여! 장군님 앞 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훗날에 장 군님께서 큰일을 하시지만 그 때는 어려운 일들도 또한 많으실 것입니다. 장군님! 장 군님은 이것을 가지고 가십시오. 이것은 여의봉(如意棒)이 을시다. 고이 간직하시다가 어 려운 일이 있을 때는 이것을 휘두르시면 소원을 말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마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부터 굴속에서 정대로 나오지 않고 인간에게 해 끼치

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군님은 부디 몸조심 하시 다가 이 나라의 국란(國難)을 극복하시고 만백성의 고통 을 구제하십시오, 장군님. 제가 어두운 굴속에서 살더라도 마음은 언제나 장군님 옆에서 하시는 일을 도우 겠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여우의 화신(化身)인 이 여인은 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후부터 몽운사의 괴변(怪變)은 없어졌다. 註: 충렬공께서 받아가신 여 의봉에 얽힌 전설(傳說)은 다 음 호에 (元榮記)

나와 함께 갈 수 있겠느냐? 「네, 그리 하오리다.」 「그리하여 공(公)은 인간으로 둔갑(遁甲)한 여우의 뒤를 따라 어두운 산골길을 걸었다. 여 시공의 억센 손은 여인의 손목 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여인은 사람의 발걸이라고는 알아 보지 않았던 듯 수목(樹木) 사이만 누비면서 얼마나 갔을 까? 산 중턱에 위치한 어느 큰 바위 앞에서 여인은 걸음을 멈추었다. 「장군님, 여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기가 제 집이 을시다. 제가 장군님의 은혜 에 보답할만한 물건이 있사오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인은 이렇게 말 하고는 공 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네가 나를 또 속일 것인가?」 공은 큰 소리로 꾸짖듯이 말 하였다. 「아니올시다 아무리 미물의 짐승이지만 장군님의 은혜를 잊는 제가 어찌 거짓말을 하 겠습니까, 장군님은 서슴치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라.」

공은 여인의 손목을 놓아 주 었다. 여인은 바로 옆에 있는 바위 굴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조금 있다가 굴속에서 나온 여인은 조그마한 나무 방망이 한개를 공에게 바치면서 공손 히 말했다. 「장군님이시여! 장군님 앞 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훗날에 장 군님께서 큰일을 하시지만 그 때는 어려운 일들도 또한 많으실 것입니다. 장군님! 장 군님은 이것을 가지고 가십시오. 이것은 여의봉(如意棒)이 을시다. 고이 간직하시다가 어 려운 일이 있을 때는 이것을 휘두르시면 소원을 말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마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부터 굴속에서 정대로 나오지 않고 인간에게 해 끼치

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군님은 부디 몸조심 하시 다가 이 나라의 국란(國難)을 극복하시고 만백성의 고통 을 구제하십시오, 장군님. 제가 어두운 굴속에서 살더라도 마음은 언제나 장군님 옆에서 하시는 일을 도우 겠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여우의 화신(化身)인 이 여인은 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후부터 몽운사의 괴변(怪變)은 없어졌다. 註: 충렬공께서 받아가신 여 의봉에 얽힌 전설(傳說)은 다 음 호에 (元榮記)

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군님은 부디 몸조심 하시 다가 이 나라의 국란(國難)을 극복하시고 만백성의 고통 을 구제하십시오, 장군님. 제가 어두운 굴속에서 살더라도 마음은 언제나 장군님 옆에서 하시는 일을 도우 겠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여우의 화신(化身)인 이 여인은 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후부터 몽운사의 괴변(怪變)은 없어졌다. 註: 충렬공께서 받아가신 여 의봉에 얽힌 전설(傳說)은 다 음 호에 (元榮記)

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군님은 부디 몸조심 하시 다가 이 나라의 국란(國難)을 극복하시고 만백성의 고통 을 구제하십시오, 장군님. 제가 어두운 굴속에서 살더라도 마음은 언제나 장군님 옆에서 하시는 일을 도우 겠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여우의 화신(化身)인 이 여인은 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후부터 몽운사의 괴변(怪變)은 없어졌다. 註: 충렬공께서 받아가신 여 의봉에 얽힌 전설(傳說)은 다 음 호에 (元榮記)

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군님은 부디 몸조심 하시 다가 이 나라의 국란(國難)을 극복하시고 만백성의 고통 을 구제하십시오, 장군님. 제가 어두운 굴속에서 살더라도 마음은 언제나 장군님 옆에서 하시는 일을 도우 겠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여우의 화신(化身)인 이 여인은 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후부터 몽운사의 괴변(怪變)은 없어졌다. 註: 충렬공께서 받아가신 여 의봉에 얽힌 전설(傳說)은 다 음 호에 (元榮記)

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군님은 부디 몸조심 하시 다가 이 나라의 국란(國難)을 극복하시고 만백성의 고통 을 구제하십시오, 장군님. 제가 어두운 굴속에서 살더라도 마음은 언제나 장군님 옆에서 하시는 일을 도우 겠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여우의 화신(化身)인 이 여인은 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후부터 몽운사의 괴변(怪變)은 없어졌다. 註: 충렬공께서 받아가신 여 의봉에 얽힌 전설(傳說)은 다 음 호에 (元榮記)

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군님은 부디 몸조심 하시 다가 이 나라의 국란(國難)을 극복하시고 만백성의 고통 을 구제하십시오, 장군님. 제가 어두운 굴속에서 살더라도 마음은 언제나 장군님 옆에서 하시는 일을 도우 겠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여우의 화신(化身)인 이 여인은 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후부터 몽운사의 괴변(怪變)은 없어졌다. 註: 충렬공께서 받아가신 여 의봉에 얽힌 전설(傳說)은 다 음 호에 (元榮記)

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군님은 부디 몸조심 하시 다가 이 나라의 국란(國難)을 극복하시고 만백성의 고통 을 구제하십시오, 장군님. 제가 어두운 굴속에서 살더라도 마음은 언제나 장군님 옆에서 하시는 일을 도우 겠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여우의 화신(化身)인 이 여인은 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후부터 몽운사의 괴변(怪變)은 없어졌다. 註: 충렬공께서 받아가신 여 의봉에 얽힌 전설(傳說)은 다 음 호에 (元榮記)

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군님은 부디 몸조심 하시 다가 이 나라의 국란(國難)을 극복하시고 만백성의 고통 을 구제하십시오, 장군님. 제가 어두운 굴속에서 살더라도 마음은 언제나 장군님 옆에서 하시는 일을 도우 겠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여우의 화신(化身)인 이 여인은 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후부터 몽운사의 괴변(怪變)은 없어졌다. 註: 충렬공께서 받아가신 여 의봉에 얽힌 전설(傳說)은 다 음 호에 (元榮記)

通常會費 納付方法

通常會費를 納付코저 하시는 宗親께서는 納付하실 金額을 가지고 가가운 우체국에 가서서 『우편대체납입』 用紙에 다음 事項을 記載해서 用紙에 封기하시면 됩니다 (用紙 金料 없음).

1. 口座番号 01983-31-513119

1. 加入者名 安東金氏大宗會

1. 納入者 住所 姓名

※ 2名以上이 同時納付하실 때는 같은 用紙를 쓰시고 뒷면(통신란)에 주소, 이름, 금액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祝 大宗會報 創刊

우편대체번호 개정

금번 12월 1일부터는 우편대체번호가 개정되어 12월 1일부터는 새 번호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12월 1일부터는 새 번호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01983-31-513119

안동김씨 대종회

吾金自麗始安東 孝子忠臣如此出一根萬枝與世同 英雄豪傑在斯中 宗親共和前烈 會報手持三四讀 後孫皆効先祖風 可知會長奏其功

翼元公十七代孫榮澤 謹稿

振替口座改定

01983-31-513119

安東金氏大宗會

